

## 현대 여성복에 나타난 중국풍 특성 - 2005년~2014년 파리 컬렉션을 중심으로 -

주가이·하승연<sup>+</sup>\*

국립공주대학교 의류상품학과 대학원졸업  
국립공주대학교 의류상품학과 부교수<sup>+</sup>\*

### The Characteristics of Chinoiserie in Contemporary Women's Wear

- Focused on Paris Collection from 2005 to 2014 -

Jiayi Zhu · Seung-Yeon Ha<sup>+</sup>\*

Graduate School Student, Dept. of Fashion Design and Merchandis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 Dept. of Fashion Design and Merchandis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sup>+</sup>\*

(2016. 3. 16 접수; 2016. 8. 30 수정; 2016. 9. 2 채택)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find out how the characteristics of Chinoiserie in the perspective of the West have influenced on the contemporary womens'fashion, 440 pieces of photo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focusing on Paris collections as a fashion capital of Europe, for the period of 10 years from 2005 through 2014.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impacts of Chinoiserie have increased consistently since 2009. The reasons for the increased impacts are assumed that the influence of Chinoiserie on the contemporary fashion rekindled it, as the worldwide attentions to China have been growing since Beijing Olympic, Aug. 2008. Reviewing by seasons, the trend of Chinoiserie has been more distinct in F/W season comparing with S/S season except year 2007 and 2011. Considering the results of analysis for each designer, Leonard and Shiatzy Chen, the designers of Chinese-origin, appeared to apply the characteristics of Chinoiserie on the contemporary fashion most successfully, while European designers, such as Dries Van Noten, Valentino, and Jean Paul Gaultier, also appeared to accommodate actively the design styles of Chinoiserie in their fashions. Moreover the Asian designers, such as Aesuro Tayama, Andrew GN, and Kenzo, had been using Chinoiserie as a means of providing oriental ambie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would be helpful to design and plan the fashion items which are scheduled to enter Chinese markets by Korean designer brands and fashion enterprises. In addition, it is considered that these results would help Chinese designers understand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Chinoiserie which have evoked empathy of people all around the world, when they make Western stage debut in the future.

*Key Words:* Chinoiserie(중국풍), Contemporary womens'wear(현대여성복), Paris collection(파리컬렉션)

---

Corresponding author ; Seung-Yeon Ha  
Tel. +82-41-850-0291, Fax. +82-41-850-8301  
E-mail : hsywings@kongju.ac.kr

## I. 서론

중국풍(Chinoiserie)이란 중국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모든 스타일을 의미한다. 이러한 중국풍은 중국적 조형성이나 중국 전통에 대한 모티프가 표출되어 있으며, 중국의 문화 원형이나 공예, 예술, 풍속, 건축 등 여러 예술·문화 코드로부터 영감을 얻고 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국문화는 이국적인 정서와 상징성 때문에 과거 유럽의 역사 속에서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전 세계 디자이너들을 매혹시키고 있다. 따라서 끈질긴 생명력과 중국인의 지혜와 철학이 들어있는 중국풍은 탐구하고 연구할만한 내용과 가치가 높다.

특히 1990년대 본격적인 중국의 개방화 정책과 1997년 홍콩의 중국반환, 2002년 WTO 가입, 그리고 2008년의 베이징올림픽 개최 등을 통해 세계로 하여금 중국이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영화나 매체, 잡지 등에서 중국에 대한 보도가 항상 이슈로 등장하였다(김연, 2012). 이러한 현상들은 중국풍이 세계무대로 다시 등장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션디자이너와 브랜드도 중국의 전통복식의 실루엣, 형태, 소재, 문양과 장식기법 등 디자인 요소들을 창작의 출발점으로 삼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서구 유명 패션브랜드들도 북경과 상해를 중심으로 대형 스토어를 오픈하고 중국 전통 예술이나 중국 현대 디자이너들의 그림을 상품에 응용하는 등 문화와 비즈니스의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김선영, 2006).

이렇듯 중국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패션디자인 분야에서도 중국풍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교단(2012), 남미령(2011), 서원자(2011), 왕애령(2007), 김선영(2006), 정지숙(2005) 등은 현대 여성복 패션에 나타난 중국풍의 디자인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고, 김연(2012)은 현대 남성복에 나타난 중국풍 디자인 특성을 연구하였다. 이렇듯 현대 패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국풍과 중국 전통복식의 디자인 특성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세계적으로 중국 전통을 현대 디자인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패션에 있어서 중국 전통복식과 문화코드에서 영감

을 얻은 디자인이 속출함으로써, 최근에 들어서 중국풍 연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 여성복에서 중국풍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즉 최근 10년간의 파리 여성복 컬렉션을 통해 나타나는 중국풍에 대한 연도별, 디자이너별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풍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럽에 중국풍이 처음 소개되었던 17세기~18세기의 관점에서 중국풍의 기원과 개념을 고찰하였으며, 중국풍 특성은 선행연구를 통해 정리하였다. 연구대상으로 파리 컬렉션을 선택한 이유는 세계 4대 컬렉션 중에서 역사적으로 유럽 패션을 대표하는 지역이 파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풍 변화에 관한 연구는 한국의 디자이너 브랜드와 패션 기업들이 중국시장에 진출함에 있어서 디자인 및 상품기획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중국 디자이너들이 서양 무대에 진출할 때에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중국풍 디자인 특성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중국풍

중국풍(Chinoiserie)이란 ‘중국에서 영감을 받은 모든 유럽 스타일’을 뜻하며(J. Dawn, 1993), 동방 무역을 통해 유입된 ‘중국 유물 또는 중국에 대한 이국적 취향과 중국풍 장식예술품’을 동시에 지칭한 용어이다(신상철, 2011). 또한 중국풍이란 유럽과 아시아 간의 교역을 통해 중국풍이나 유사 중국(Pseudo-Chinese)의 디자인 모티프가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까지 유럽의 예술양식에 나타난 것을 칭한다(이춘희, 신상옥, 2000). 한편 중국풍을 ‘중국 스타일(Chinese Style)’이라는 넓은 의미로서 중국 문화에 바탕으로 두고 중국의 요소를 표현 방식으로 하는 독특한 매력과 성격을 가진 예술 형식이라고 설명(김연, 2012)할 수 있으며, ‘중국(中国)’과 중국에서 기인한 양식, 풍격, 스타일 등의 의미를 갖고 있는 ‘풍(风)자’가 합성되어 생성된 용어로 정의(교단, 2012)할 수 있다.

중국풍은 중세시대의 실크로드(Silk Road)를 통해 서양에 처음 알려졌고, 서양인들에게 중국이란 소수의 사람 이외에는 경험하지 못한 그래서 수 세기동안 신비롭게 남겨있는 이국적이고 비옥한 먼 나라이며 부(富)의 전설이자 상상의 세계였다. 중세 시대에 몇몇 여행자들의 긴 여행에 의해 중국은 서양에 알려졌고, 그들은 상상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옴으로써 유럽인들을 매료시켰다. 중국이라는 신비로운 세계를 뚫고 온 모험자들이 서양으로 돌아오면서 가져온 물건들은 중국에 대한 상상을 더욱 부채질하였다(Dawn, J., 1993).

17세기 동인도회사의 배에서 실어내리는 도자기, 옷, 실크 등 진기한 물건들로 인하여 중국풍에 대한 취향은 가구와 벽지를 포함한 실내디자인부터 바느질함까지 모든 장식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치었다. 18세기의 로코코 시대에는 중국풍이 유행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다. 가구들은 중국풍으로 바뀌었고, 도자기 공장들이 생겨났으며, 벽지의 그림은 탑들로 가득 찼다. 이러한 현상은 이태리의 나폴리에서 영국과 스웨덴까지 귀족들의 정원이 영국식 풍경에서 중국식 정원과 여름별장으로 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신고전주의 시대가 오기 이전까지 중국풍은 18세기의 가구와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Dawn, J., 1993).

19세기에 접어들어 중국양식이 잠시 퇴색했는데, 그 이유는 중국과 동아시아의 매력에 터키, 이집트, 고딕, 그리스 양식과 같은 다른 이국적인 취향과 경쟁되었기 때문이었다(박은경, 이제정, 2004). 그러나 신흥중산층 계급이 중국풍 스타일을 다시 활성화시키면서 중국풍의 유행은 계속되었고, 일상 제품의 디자인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났다(Dawn, J., 1993). 20세기 초반에는 장식미술공예운동에 의해 중국풍이 실내장식에서 활기를 되찾았으나, 오리엔탈리즘의 유행으로 인테리어와 복식 등 여러 디자인 분야에서 부활되어(박은경, 이제정, 2004), 유럽인들은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중국풍의 계승자가 되었다. 즉 서양인들은 중국풍 도자기에 차를 마시고, 실내 커튼으로 모란과 자두 꽃이 활짝 핀 문양을 고르며, 실내 장식품으로 옷칠된 가구를 선택함으로써 몇 백년 동안 중국 예술의 열정적

인 추종자를 차지하였고, 예술가와 장인들은 이러한 수요에 따라 중국풍을 추구하였다(Dawn, J., 1993).

## 2. 중국풍의 성격과 종류

중국 문화는 서양과는 다르게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발달해왔다. 중국은 오랜 역사와 풍부한 전통 문화를 가진 다(多)민족 국가로서, 역사와 문명의 진화 과정에서 합류하며 형성된 민족의 특색과 풍모를 반영한 민족 문화이다. 그리고 중국의 문화는 중국 민족의 역사에서 출현하였던 각종 사상 문화와 이데올로기의 총체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즉 유교사상을 핵심으로 도교, 불교 등 여러 종교 문화 양식이 공존하면서 다양한 정취를 형성하여 왔다. 중국풍은 이러한 중국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하였다(동경대 중국철학연구소, 2003). 따라서 중국풍의 성격은 서양 사람들이 중국의 예술과 공예에 대한 이해와 동양적인 생활모습, 인물, 풍경, 풍습에 대한 상상 등을 반영한 것에 서양의 심미적 요소가 추가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중국풍이 크게 유행하게 된 로코코 시대를 비롯한 근대 시기에 예술에 있어 중국풍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 문학, 음악, 미술, 공예품 등에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중국풍의 영향을 받은 예술의 범주는 자기(瓷器), 칠기(漆器) 등 동양의 공예품을 모방한 것과 동양의 재료로 창작한 것 뿐만 아니라 가구, 도자, 방직, 공예 등의 장식예술부터 회화, 건축, 원예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다(한국브리태니커, 1992). 이 중 패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화, 공예, 건축 관련 분야의 예술 작품에 나타난 중국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회화

서양미술사에서 중국풍은 18세기 로코코 미술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으며 동양의 이국적 이미지를 차용하여 만들어진 프랑스 장식예술을 지칭하는 용어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신상철, 2011). 특히 자기와 비단, 자연 풍경을 담은 그림 혹은 정교하게 꾸며진 무늬는 모두 유럽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일찍이 프랑스 왕



〈그림 1〉 1742. The Chinese Garden  
(출처: Chinoiserie (p.77) Morena, F. 2009  
Florence: Alpi Lito.)



〈그림 2〉 1910. The New Necklace  
(출처: China Chic (p.68) Steele, V., Major, J. S. 1999,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그림 3〉 1837. 중국풍 정자  
(출처: Chinoiserie (p.280) Morena, F. 2009  
Florence: Alpi Lito.)



〈그림 4〉 18세기. 중국풍 인테리어와 가구  
(출처: Chinoiserie (p.114) Morena, F. 2009  
Florence: Alpi Lito.)

은 중국화를 옷장에 그려 넣기도 하였다(정지숙, 2006). 프랑스 로코코 시대에 뛰어난 화가들이 중국 양식에 심취하여 중국 회화의 영향을 받은 많은 작품을 배출하였다. 그 예로서, 로코코 시대의 풍경화가 와토(Jwan-Antoine Watteau)는 중국 화법의 영향을 받은 첫 번째 인물이었으며, 그 밖에도 중국 화법의 영향을 받은 화가 프랑수아 부쉐(Francois Boucher)는 그 시대의 취향과 유행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 작품으로 궁정과 대중에게 폭넓은 인기를 누렸다. 부쉐는 1742년에 중국을 주제로 한 회화 4점을 출품하였다(戒克, 1998). 〈그림 1〉은 1742년에 제작되어진 프랑수아 부쉐의 작품으로 시대가 불분명한 상상 속의 중국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2〉는 1910년

에 그려진 팩스톤(William McGregor Paxton)의 작품으로, 유럽 귀족의 중국 취미 자체를 회화의 소재로 이용하였다.

## 2) 건축과 가구

건축에서 제일 먼저 나타난 중국풍은 1671년 프랑스 루이 14세 때 건축된 베르사유 궁전의 부원인 트리아농(Trianon) 궁에 있는 중국식 탑과 정자(그림 3) 등에서 볼 수 있다(袁宜萍, 2006). 〈그림 4〉는 중국풍의 색감, 문양 등이 유럽 건축의 가구와 건축, 실내 벽지 등의 오브제에 모티프로 활용된 사례이다.

18세기 유럽 상류사회의 실내를 장식했던 공



〈그림 5〉 18세기. 중국풍 실내가구  
(출처: Chinoiserie (p.223) Morena, F. 2009 Florence: Alpi Lito.)



〈그림 6〉 1772. 중국풍가구 서랍장  
(출처: Chinoiserie (p.152) Morena, F. 2009 Florence: Alpi Lito.)



〈그림 7〉 1993. 중국풍벽지  
(출처: Chinoiserie (p.120) Morena, F. 2009 Florence: Alpi Lito.)



〈그림 8〉 1725. 청나라 도자기  
(출처: Chinese Art & Culture (p.41) Thorp, R. L., Vinograd, R. E. New Jersey: Pearson Prentice Hall.)



〈그림 9〉 1725. 중국풍 도자기  
(출처: Chinese Art & Culture (p.42) Thorp, R. L., Vinograd, R. E. New Jersey: Pearson Prentice Hall.)



〈그림 10〉 18세기. 중국풍 도자기  
(출처: Chinoiserie (p.48) Morena, F. 2009 Florence: Alpi Lito.)

예품이나 가구 등의 중국풍 예술품은 동양 문화와 유럽의 취향이 적절히 혼합되어 생산되었다. 중국으로부터 다양한 가구가 유럽으로 수입되었는데, 그 중에서 칠기나 자재, 상아 등 이국적인 재료로 장식된 흑단가구가 18세기 유럽의 실내 장식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신주영, 2006). 또한 중국 가구들의 단순함은 17세기 유럽에서 세련된 유행으로 인식되어 일상적이고 실용적인 생활용품으로 인기가 있었다(정지숙, 2006). 〈그림 5〉는 중국풍의 영향을 받은 실내 가구로서 의자 디자인의 모습이다. 〈그림 6〉은 중국의 인물, 풍경 등의 풍습에 관한 문양을 가구의 뒷배나 표면의 장식으로 사용하였다. 이 가구의 등장인물들은 중국의 대표적 여성복인 삼(衫)을 착용하고 동양의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그림 7〉은 실내장식 벽지에 중국인들의 생활모습, 풍경 등을 모티프로 표현하였다. 남성들은 뾰족한 관모를 쓰고 조복을 착용

하였으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당시 동시대의 청나라 시대의 장오를 입은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림 속의 세계는 중국에 대한 상상적 요소가 가미되어 시대가 불분명하다.

### 3) 도자기

유럽인의 중국 도자기에 대한 흥미는 중세 말부터 엿보였으나, 대량으로 수입된 것은 16세기 말부터였다. 유럽인들의 도자기 수입은 처음에는 단순한 수집 대상에 지나지 않았으나, 17세기에 이르러 도자기 제조법을 습득함으로써 동양의 모방품을 만들어내게 되었다(정홍숙, 박형애, 1998). 17세기 이후 주석 유약 도기인 청색과 백색의 네덜란드 델프트 도기는 중국 도자기를 세밀하게 모방하여 제작되었으며, 차이나(China)가 도자기의 동의어로 되어 있는 것에서도 중국풍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정지숙, 2006). 〈그



〈그림 11〉 17세기. 중국풍 직물  
(출처: (2014. 4. 20) 바이두  
(<http://image.baidu.com>))



〈그림 12〉 1750. 중국풍직물  
(출처: Chinoiserie (p.80) Dawn, J. 1993  
London: Phaidon Press Ltd.)



〈그림 13〉 1766. 중국풍면직물  
(출처: Chinoiserie (p.136) Dawn, J. 1993  
London: Phaidon Press Ltd.)



〈그림 14〉 18세기초. 새문양직물  
(출처: Chinoiserie (p.123) Morena,  
F.2009 Florence: Alpi Lito.)



〈그림 15〉 18세기초. 도자기문양직물  
(출처: Chinoiserie (p.85) Dawn,  
J.1993 London: Phaidon Press Ltd.)



〈그림 16〉 18세기. 건축문양직물  
(출처: Chinoiserie (p.53) Dawn,  
J.1993 London: Phaidon Press Ltd.)

림 8)은 중국식 도자기를 모방하여 1725년 비엔나의 두 파퀴에르(Du paquoer) 공장에서 제작된 것으로, 중국 인물들이 문양으로 그려져 있다. 〈그림 9〉의 도자기 속 인물들의 옷차림을 보면, 가운데 남성은 청나라의 만다린 이미지와 비슷하다. 한 명의 남성은 중국의 대표적인 남성복포(袍)를 착용하고 뾰족한 파고다 모자를 쓴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여성들이 입고 있는 옷은 중국 대표적인 여성복 유군(襦裙)이다. 이것은 로코코 회화의 특유한 정교함을 가미한 것으로 그림 속 배경은 불분명한 시대로 상상의 중국을 표현하였다. 〈그림 10〉은 18세기의 중국풍 영향을 받은 도자기이다.

4) 텍스타일

18세기의 유럽에서 중국풍의 영향을 받은 문양은 중국의 문양을 그대로 모방했는데, 주로 사용된 모티프는 꽃과 정원 풍경, 꽃바구니 등이었다. 이는 17세기 바로크 양식의 부정형 또는 유동적인 조형요소들이 표현되었던 것과는 달리 좀 더 가벼운 재질, 작은 크기의 꽃문양, 신비하고도 밝은 분위기, 여성적이면서 세련된 화려함으로 표현되었다. 즉 18세기 직물에는 상상 속의 중국과 현실의 유럽 스타일이 혼합된 문양이 많이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풍경 속을 거니는 중국인, 탑이나 정자 누각과 같은 중국의 대표적인 건축 양식들, 이국적인 꽃과 식물, 채색되고 조각된 조개껍질들, 파도치고 소용돌이치는 물결, C와 S자형의 곡선, 한 송이의 꽃 또는 꽃다발과 같은 로코코 중국풍 텍스타일로 나타났다. 로코코 중국풍의 텍스타일 디자인을 대표하는 예술

가로 장 피유망(Jean Pillement)을 들 수 있는데, 그는 중국인들의 생활양식과 장식 문양을 묘사한 것과 중국적인 모티프와 로코코 고유의 곡선, 사실적인 꽃무늬를 혼합한 독특한 중국풍 패턴이 대표적인 디자인이다(교단, 2012). <그림 11>은 17세기 영국 왕실에서 썼던 침대 커버에 나타난 중국 보상화풍의 꽃무늬이다. <그림 12>는 중국인들의 생활모습과 풍경을 모티프로 프린트되었다. <그림 13>에서는 중국식의 파고다, 정자, 누각 등의 건축양식이 표현되어 있다. <그림 14>는 18세기 초에 중국풍을 영향을 받고 나타난 새 문양과 꽃문양을 조합한 직물이며, <그림 15>는 모란문양과 중국 도자기문양을 이용한 텍스타일이다. <그림 16>은 18세기 유럽의 영국과 이탈리아에서 나타난 중국풍의 영향을 받은 건축문양을 들어간 텍스타일의 예들이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중국풍 특성 변화의 연구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의 파리컬렉션을 중심으로 사진자료를 수집하였다. 파리 컬렉션을 선택한 이유는 세계 4대 컬렉션 중에서 역사적으로 유럽 패션을 대표하는 지역이 파리이기 때문이다. 수집방법은 국내의 패션정보전문 인터넷사이트인 [www.firstviewkorea.com](http://www.firstviewkorea.com)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집된 사진 자료는 총 1,646장이었다. 이 중 패션디자이너 전공 관련 대학원생과 교수로 구성된 8명에 의해 1차 분석을 거쳐 과반수이상의 인원에서 선별된 440장을 최종 연구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중국풍이 나타난 컬렉션 사진자료를 1차 분석을 한 인원은 중국풍이 나타난 현대 패션디자인을 선별하기 위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인 4명과 중국인 4명으로 각각 구성하였다.

중국풍 특성이 나타난 현대 패션의 컬렉션 사진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첫 번째, 패션디자이너 전공 관련 대학원생과 교수로 구성된 8명 인원에게 유럽의 16-19세기에 중국풍으로 유행하던 회화, 공예, 건축, 텍스타일 등의 자료를 보여주며

중국풍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설명하였다. 두 번째,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의 파리컬렉션 사진자료 1,646장을 차례로 보여주며, 중국풍 특성이 느껴지는 자료에 체크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 1646장의 사진자료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체크한 자료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선정된 476장 중 중복된 디자인을 제외한 440장이 최종 연구대상 자료로 수집되었다.

## Ⅳ. 결과 및 논의

### 1. 중국풍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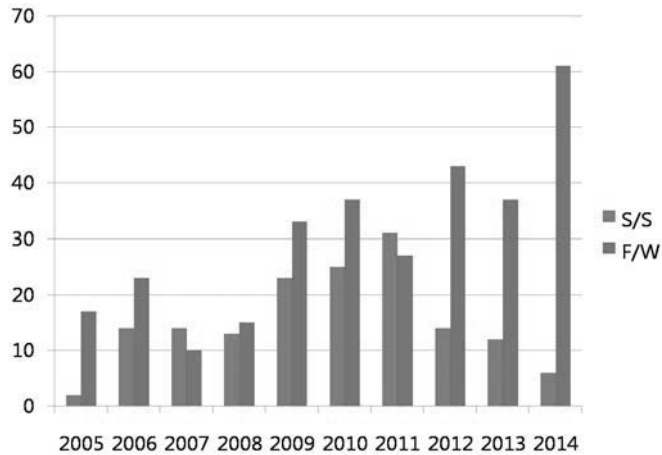
17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 서양의 회화, 건축과 가구, 도자기, 텍스타일에 나타난 중국풍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회화에서는 중국 전통복식을 착장한 사람들의 모습, 건축과 가구에서는 중국의 건축물과 중국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 중국의 자연 풍경, 문양 등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도자기에서도 중국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과 중국의 나무나 숲 등 자연 풍경이 나타났으며,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 속에서 중국의 전통복식과 실내 풍경 및 가구 등이 보여졌다. 텍스타일에서는 중국의 전통적인 건축물과 식물, 동물, 꽃 등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17세기부터 18세기의 회화와 가구, 공예에 중국 전통복식으로 많이 등장하는 마패, 장오 등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마패와 장오의 실루엣은 대부분 H형 실루엣이며, 차이나 칼라와 원목돌레션의 칼라 형태, 통이 좁거나 넓은 소매형태, 세로방향의 직선 여밈 또는 'ㄷ'자 형태의 여밈방식으로 나타난다(주가이, 하승연, 2015). 중국풍 특성을 보이는 색상으로는, 건축과 가구에서 붉은색, 검은색, 금색이 많이 나타났고, 도자기에서는 청색과 흰색이, 그리고 텍스타일에서는 붉은색, 청색, 녹색, 흰색 등 다채로운 색상들이 보여졌다. 문양에 있어서는 텍스타일에는 부귀와 영화를 상징하는 화려한 모란문이 많이 보여졌고, 당초문과 매화문도 나타났다. 그리고 동물문으로는 용, 새, 봉황 등이 많이 나타났다.

〈표 5〉 중국풍 특성의 연도별 분석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S/S	F/W	S/S	F/W	S/S	F/W	S/S	F/W	S/S	F/W
사례수	2	17	14	23	14	10	13	14	23	32
	19		36		24		27		55	
빈도	4.3%		8.2%		5.5%		6.1%		12.5%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S/S	F/W	S/S	F/W	S/S	F/W	S/S	F/W	S/S	F/W
사례수	25	35	31	25	14	43	12	36	3	55
	60		56		57		48		58	
빈도	13.6%		12.7%		13%		10.9%		13.2%	



〈그림 17〉 현대패션에 나타난 중국풍 특성의 연도별 분석

2. 현대 여성복 컬렉션에 나타난 중국풍 특성의 연도별 분석

위와 같은 중국풍 특징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2005년 S/S부터 2014년 F/W까지 파리 컬렉션에 나타난 중국풍 패션 총 440점을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2005년(19점), 2006년(36점), 2007년(24점), 2008년(27점), 2009년(55점), 2010년(60점), 2011년(56점), 2012년(57점), 2013년(48점), 2014년(58점)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2009년 이후에 중국풍의 경향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2008년 8월에 중국에서 개최된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증가하

면서, 패션 분야에 있어서도 중국풍의 영향이 되살아난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17〉의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현대 패션에 나타난 중국풍 특성의 연도별 분석을 살펴보면, 2007년과 2008년에 잠시 주춤하고 2011년과 2013년에 잠시 주춤했을 뿐 전체적으로 10년간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10년 중국풍 디자인의 응용 사례수가 60건(13.6%)를 나타내며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시즌으로 살펴보면, 2005년 S/S부터 2014년 F/W까지 최근 10년간 2007년과 2011년을 제외하면, S/S 시즌보다 F/W 시즌에 중국풍을 활용한 디자인이 많이



나타났다. 특히 2014년 F/W에서 중국풍 디자인 특성이 반영된 사례가 55건으로 가장 두드러졌다. 이를 토대로 F/W에서 S/S보다 중국풍 디자인의 특성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로서, 이너웨어보다 재킷이나 코트의 여밈 형태나 디테일에서 중국풍 특성이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현대패션에 나타난 중국풍 특성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았다. 교단(2012)의 연구에서는 1997년부터 2012년까지 16년간의 파리, 밀라노, 런던, 뉴욕의 4대 컬렉션을 중심으로 중국풍이 반영된 사진 416점을 분석한 결과, 빈도는 파리 컬렉션(36%), 밀라노 컬렉션(32%), 뉴욕 컬렉션(11%), 런던 컬렉션(7%)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교단의 연구에서도 세계 패션의 4대 컬렉션 중에서 중국풍 특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컬렉션이 파리 컬렉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본 연구가 현대 패션에 나타난 중국풍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대상의 범위를 파리 컬렉션을 중심으로 분석한 이유의 정당성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정지숙(2006)의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간 4대 컬렉션에서 중국풍 특성이 나타난 377장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95점), 2002년(91점), 2005년(72점), 2004년(60점), 2000년(31점), 2001년(28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즌별로는 중국풍 특성이 S/S(114점)보다 F/W(165점)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연도별 결과는 정지숙(2006)의 연구한 시기와 본 연구의 시기와 다르므로 비교할 수 없으나, 시즌에 관한 결과는 S/S보다 F/W에서 높은 중국풍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김연(2012)의 연구에서는 2001년대 이후 2012년까지 해외 컬렉션과 중국 컬렉션의 남성복 재킷에 나타난 중국풍을 고찰하였다. 해외 컬렉션에서는 2009년과 2003년에 중국풍의 빈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 컬렉션에서는 2007년과 2008년에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써, 현대 패션에 나타난 중국풍 특성이 2000년대 초반보다 후반에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시즌별로는 해외 컬렉션과 중국 컬렉션 모두에서 S/S보다 F/W에서 중국풍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왕애령(2007)의 연구에

서는 1997년부터 2006년도까지 10년간의 중국 컬렉션과 해외 컬렉션에서 수집한 자료를 중심으로 중국풍 패션 이미지를 고찰했지만 연도별과 시즌별을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결과와 비교할 수 없었다.

### 3) 현대 여성복 컬렉션에 나타난 중국풍 특성의 디자이너별 분석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파리 컬렉션에서 중국풍 특성이 나타난 총 440점의 자료를 디자이너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Leonard(123점), Shiatzy Chen(102점), Dries Van Noten(40점), Valentino(20점), Jean Paul Gaultier(15점)와 Kenzo(14점), Louis Vuitton(12점), Andrew GN(11점), John Galliano(10점), Aesuro Tayama(9점), Tsumori Chisato(8점), Barbara Bui(7점), Moncler와 Ong Shunmugam(각각 6점), Akris, Gareth Pugh와 Hussein Chalayan(각각 5점), Scherrer와 Sirivannavari(각각 4점), Chado Ralph Rucci, Christian Dior, Viktor & Rolf 와 Vivienne Westwood(각각 3점), Balenciaga, Cher Michel Klein, Iwaya For Dress, JC De Castelbajac, Paco Rabanne 와 Shawnyi by Yufengshawn(각각 2점), Celine, Corrado De Biase, Estrella Archs, Givenchy, Issey Miyake, Jefen, Keita, Maragama, Loewe, Stella McCartney, 그리고 Yohji Yamamoto(각각 1점) 순이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중국풍 특성이 나타난 현대패션 디자이너별 현황은 다음과 같았다. 1977년부터 2012년까지 4대 컬렉션을 분석한 교단(2012)의 경우는 뉴욕 컬렉션의 Vivienne Tam에게서 중국풍 특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파리 컬렉션의 Shiatzy Chen과 뉴욕 컬렉션의 Jason Wu가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세계 4대 컬렉션을 분석한 정지숙(2006)의 연구에서도 뉴욕 컬렉션의 Vivienne Tam에게서 중국풍 특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파리 컬렉션의 YSL, Andrew GN, Philosophy, Kenzo, Leonard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파리 컬렉션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므로 뉴욕 컬렉션의 Vivienne Tam과는 비교할 수 없었으나, 파리 컬렉션의 Shiatzy Chen에서 중

〈표 6〉 중국풍 특성의 디자이너별 분석

디자이너	연도	사례수
Leonard	2005 F/W(4), 2005 S/S(1), 2006 F/W(1), 2006 S/S(3), 2007 F/W(1), 2007 S/S(9), 2008 F/W(12), 2008 S/S(2), 2009 F/W(12), 2010 F/W(7), 2010 S/S(16), 2011 F/W(22), 2011 S/S(2), 2012 F/W(5), 2013 F/W(10), 2014 S/S(1), 2014 F/W(15)	123
Shiatzy Chen	2007 F/W(1), 2009 F/W(16), 2009 S/S(15), 2010 F/W(10), 2010 S/S(4), 2011 F/W(2), 2011 S/S(3), 2012 S/S(8), 2013 F/W(22), 2013 S/S(6), 2014 F/W(15)	102
Dries Van Noten	2010 S/S(2), 2011 S/S(8), 2012 F/W(31), 2012 S/S(1), 2014 S/S(2)	40
Valentino	2006 S/S(12), 2012 F/W(3), 2013 F/W(3), 2014 F/W(2)	20
Jean Paul Gaultier	2007-S/S(2), 2008-F/W(2), 2010-F/W(11)	15
Kenzo	2005-F/W(1), 2005-S/S(1), 2006-F/W(12)	14
Louis Vuitton	2011-S/S(12)	12
Andrew GN	2005-F/W(5), 2009-S/S(6)	11
John Galliano	2006-S/S(3), 2009-F/W(1), 2010-F/W(6)	10
Aesuro Tayama	2014 F/W(9)	9
Tsumori Chisato	2007-F/W(8)	8
Barbara Bui	2012-F/W(7)	7
Moncler	2011-S/S(6)	6
Ong Shunmugam	2013-S/S(6)	6
Akris	2014-F/W(5)	5
Gareth Pugh	2014-F/W(5)	5
Hussein Chalayan	2012-S/S(5)	5
Scherrer	2005-F/W(4)	4
Srivannavari	2008-S/S(4)	4
Viktor & Rolf	2010-S/S(3)	3
Vivienne Westwood	2014-F/W(3)	3
Chado Ralph Rucci	2008-S/S(3)	3
Christian Dior	2008-S/S(1), 2009-F/W(2)	3
Paco Rabanne	2006-S/S(2)	2
Shawnyi by Yufengshawn	2006-S/S(2)	2
Balenciaga	2007-F/W(1), 2008-S/S(1)	2
Cher Michel Klein	2005-F/W(2)	2
Iwaya For Dress	2009-F/W(1), 2009-S/S(1)	2
JC De Castelbajac	2007-S/S(2)	2
계		440점

국풍 특성이 강한 디자이너 2순위로 나타난 교단(2012)의 연구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다만 파리 컬렉션의 Leonard가 정지숙(2006)의 결과에서 6순위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1순위로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는 정지숙(2006)이 연구한 2005년 이전에는 Leonard 에서 중국풍 특성의 경향이 약하다가 2005년 이후에 중국풍 특성을 반영하는 사례가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고 예측하였다. 본 연구와 교단(2012)의 연구에서 중국풍 특성의 반영에 있어서 각각 2순위로 나타난 Shiatzy Chen이 정지숙(2006)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Shiatzy Chen이 이미 1978년에 대만에서 생겨난 브랜드이지만, 2009년에 파리 컬렉션에 진출했기 때문에 2006년 이전까지의 자료를 조사한 정지숙의 연구에는 나

타나지 않은 것으로 예측된다. 김연(2012)의 연구에서는 해외 컬렉션 중에서는 Giogior Armani에게서 중국풍 특성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Yohji Yamamoto, Louis Vuitton, Dolce&Gabbana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연(2012)의 연구는 현대 남성복에 나타난 중국 디자인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기 때문에 현대 여성패션을 중심으로 연구한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써 중국풍 특성이 나타나는 디자이너가 남성복과 여성복이 각각 다를 수 있었다.

〈그림 18〉은 Leonard의 2008년 F/W작품으로, 중국 전통복식인 마괘의 형태적 특징인 차이나 칼라, 넓은 소매, 세로 직선 여밈의 디테일을 활용하였다. 또한 중국을 대표하는 식물인 모란 문양을 크고 화려하게 프린트함으로써 중국풍을



〈그림 18〉 Leonard 2008 F/W  
(출처: (2014. 1. 27) 퍼스트뷰코리아  
(www.firstviewkorea.com))



〈그림 19〉 Leonard 2011 F/W  
(출처: (2014. 1. 27) 퍼스트뷰코리아  
(www.firstviewkorea.com))



〈그림 20〉 Shiatzy Chen 2009 F/W  
(출처: (2014. 1. 27) 퍼스트뷰코리아  
(www.firstviewkorea.com))



〈그림 21〉 Shiatzy Chen 2013 S/S  
(출처: (2014. 1. 27) 퍼스트뷰코리아  
(www.firstviewkorea.com))



〈그림 22〉 Dries Van Noten 2012 F/W  
(출처: (2014. 1. 27) 퍼스트뷰코리아  
(www.firstviewkorea.com))



〈그림 23〉 Dries Van Noten 2012 F/W  
(출처: (2014. 1. 27) 퍼스트뷰  
(www.firstviewkorea.com))



〈그림 24〉 Valentino 2012 F/W  
(출처: (2014. 1. 27) 퍼스트뷰코리아  
(www.firstviewkorea.com))



〈그림 25〉 Valentino 2013 F/W  
(출처: (2014. 1. 27) 퍼스트뷰코리아  
(www.firstviewkorea.com))



〈그림 26〉 Jean Paul Gaultier 2008  
F/W  
(출처: (2014. 1. 27) 퍼스트뷰코리아  
(www.firstviewkorea.com))



〈그림 27〉 Jean Paul Gaultier 2010  
F/W  
(출처: (2014. 1. 27) 퍼스트뷰코리아  
(www.firstviewkorea.com))



〈그림 28〉 Kenzo 2006 F/W  
(출처: (2014. 1. 27) 퍼스트뷰코리아  
(www.firstviewkorea.com))



〈그림 29〉 Kenzo 2006 F/W  
(출처: (2014. 1. 27) 퍼스트뷰코리아  
(www.firstviewkorea.com))



〈그림 30〉 Andrew GN 2005 F/W  
(출처: (2014. 1. 27) 퍼스트뷰코리아  
(www.firstviewkorea.com))



〈그림 31〉 Andrew GN 2009 S/S  
(출처: (2014. 1. 27) 퍼스트뷰코리아  
(www.firstviewkorea.com))



〈그림 32〉 Tsumori Chisato 2007 F/W  
(출처: (2014. 1. 27) 퍼스트뷰코리아  
(www.firstviewkorea.com))

표현하였다. <그림 19>는 Leonard의 2011년 F/W 작품으로 H형 실루엣으로 원목 둘레선과 세로 직선 여밈 디테일을 이용하였다. 역시 모란 문양을 프린팅한 디자인이다. <그림 20>은 Shiatzy Chen의 2009년 F/W 작품으로 차이나 칼라와 좁은 소매, 세로 직선 여밈 디테일을 이용하고, 식물문양을 자수 기법으로 표현한 디자인이다. <그림 21>은 Shiatzy Chen의 2013년 S/S 작품으로 H형 실루엣과 차이나 칼라 디테일을 활용하였으며, 흰색의 실크원단에 회화적인 번지기 기법으로 추상문양을 표현하였다. <그림 22>는 Dries Van Noten의 2012년 F/SW 작품으로 차이나 칼라를 이용한 전형적인 서구식 정장 스타일에 용 문양을 금색으로 프린트하여 중국풍 특성을 표현하였다. <그림 23>도 Dries Van Noten의 2012년 F/W 작품으로 중국 전통복식인 장오의 H형 실루엣과 차이나 칼라, 좁은 소매 디테일을 활용한 셔츠에 서구식 바지를 매치한 디자인이다. 물결, 파도, 구름 등 자연문양을 문양이 없는 부분과 그래픽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중국풍을 현대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24>는 Valentino의 2012년 F/W 작품으로 차이나 칼라와 매듭단추 디테일을 활용하고, 가슴에 원단과 동일한 색상으로 식물문양이 자수되어져 고급스럽고 현대적인 중국풍으로 표현된 디자인이다. <그림 25>는 Valentino의 2013년 F/W 작품으로, 마치 중국 도자기를 보는 듯한 색상과 문양으로 디자인되었다. <그림 26>은 Jean Paul Gaultier의 2008년 F/W 작품으로, 용 문양이 프린트되었다. <그림 27>은 Jean Paul Gaultier의 2010년 F/W 작품으로, 중국 전통복식인 장오의 H형 실루엣에 모란이 화려하게 프린트되었다. 사용된 원단은 실크이며, 색상대비가 강렬하고 중국 소수민족의 털장식 모자를 코디함으로써 중국풍을 더욱 강조하였다. <그림 28>은 Kenzo의 2006년 F/W 작품으로, 세로 직선 디테일에 말발굽 형태의 장식을 하였고 식물문양을 자카드 니팅 기법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그림 29>은 Kenzo의 2006년 F/W 작품으로, 대각선 여밈 형태를 활용하고 식물문양을 자수하였다. <그림 30>은 Andrew GN의 2005년 F/W 작품으로, H형 실루엣에 차이나 칼라와 대각선 여밈 디테일과 털 장식으로 트리밍된 작품이다. 몸판에 매화문양이 프린트와 자

수기법로 풀라주되었다. <그림 31>은 Andrew GN의 2009년 S/S 작품으로, 역시 H형 실루엣에 동그렇게 파여진 원목둘레선으로 구성되었으며, 식물문양이 금색으로 화려하게 자수되었다. <그림 32>는 Tsumori Chisato의 2007년 F/W 작품으로, 원목둘레선과 통이 넓은 소매에 물결문양이 켈팅되었으며, 가슴 부분에 용 문양을 자수기법으로 표현함으로써 중국풍을 강조하였다.

#### 4) 현대 여성복 컬렉션에 나타난 중국풍 특성의 디자이너 유형별 분석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파리 컬렉션에서 중국풍 디자인 특성을 활용한 디자이너의 유형을 중국계 디자이너, 유럽계 디자이너,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계 디자이너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중국계 디자이너가 전체 디자이너의 51.8%(228점)를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유럽계 디자이너는 25명으로 35.5%(156점)를 차지하였다. 한편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계 디자이너는 10명으로 12.7%(56점)로 나타났다. 중국풍 특성이 나타난 작품 수는 중국계 디자이너의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Leonard와 Shiatzy Chen과 같이 몇 명의 디자이너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유럽계 디자이너의 경우는 디자이너별 중국풍이 나타난 작품수가 많지 않더라도 많은 디자이너들이 중국풍을 다양하게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계 디자이너들도 전체적인 수가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디자이너들이 아시아의 감성으로 중국풍을 해석함으로써 중국계 디자이너와 닮은 듯 다르게 나름대로의 중국풍을 표현하였다.

중국계 디자이너인 Leonard(123점)와 Shiatzy Chen(102점)이 각각 중국풍 특성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Leonard의 패션에서 보여지는 중국풍 특성은 H형 실루엣에 차이나 칼라와 세로 직선 목 트임의 디테일이 많이 나타났으며, 대부분 식물문양과 기하학 문양, 또는 식물문양과 기하학 문양을 결합한 복합문양을 프린트물이 많았다. Shiatzy Chen의 패션에 나타난 중국풍 특성은 역시 H형 실루엣과 차이나 칼라, 세로 직선 여밈, 'ㄷ'자 대각선 여밈, 매듭 단추 등을 들 수 있다. 소재로는 실크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회화의 번

〈표 7〉 중국풍 특성의 디자이너 유형별 분석

디자이너 유형	디자이너명	사례수 (빈도)	대표적특징
중국계	Leonard Shiatzy Chen Shawnyi by Yufengshawn Jefen.	228 (51.8%)	H형 실루엣 차이나칼라, 매듭단추 세로여밈, 대각선여밈 식물문양, 자연문양 실크소재
유럽계	Akris, Balenciaga, Barbara Bui, Celine Chado Ralph Rucci, Cher Michel Klein Corrado De Biase, Dior, Dries Van Noten Estrella Archs, Gareth Pugh, Givenchy JC De Castelbajac, Jean Paul Gaultier John Galiano, Loewe, Louis Vuitton Moncler, Ong Shunmugam, Paco Rabanne Scherrer, Stella McCartney, Valentino Viktor & Rolf, Vivienne Westwood	156 (35.5%)	H형 실루엣 차이나칼라, 매듭단추 모란 등 식물문양 물결 등 자연문양 도자기색상과 문양 중국소수민족의 모자, 소품이용
중국 제외 아시아계	Aesuro Tayama, Andrew GN, Kenzo Yohji Yamamoto. Hussein Chalayan Issey Miyake, Iwaya For Dress, Keita Maruyama, Sirivannavari, Tsumori Chisato	56 (12.7%)	H형 실루엣 차이나칼라, 매듭단추 대각선여밈 식물문양의 프린트, 자수, 니팅기법
계		440점 (100%)	

지기 프린트 기법, 산, 구름 등의 자연문양과 식물문양을 프린트하거나 비즈 또는 자수로 표현한 기법이 많이 보여졌다.

유럽계 디자이너 중에서는 벨기에 출신인 Dries Van Noten(40점), Valentino(20점), Jean Paul Gaultier(15점)의 순으로 중국풍 디자인 특성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Dries Van Noten의 패션에 나타난 중국풍 특성은 전형적인 서구 복식의 형태에 때로는 차이나 칼라와 세로 직선 여밈 디테일과 통이 넓은 소매가 보여졌다. 문양으로는 모란 등 식물문양을 자수하거나 봉황, 용 등의 동물문양을 금색으로 프린트 또는 자수하는 기법이 보여졌다. 특히 물결, 파도, 구름 등의 자연문양을 프린트하거나 기하문양과 결합한 복합문양을 무지와 함께 그래픽적으로 배치하여 현대적으로 표현한 경우가 많이 보여졌다. 그리고 Valentino의 패션에서도 모란 문양이 프린트되거나 자수 기법으로 자주 보여졌으며, 매듭단추와 원목둘레선 디테일과 중국 도자기 색상의 청색과 흰색, 그리고 도자기 패턴 등을 활용한 문양들이 보여

졌다. 한편 Jean Paul Gaultier의 패션에서는 H형 실루엣과 차이나 칼라 디테일이 보여졌으며, 용 문양을 프린트하거나 자수기법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한 모란, 한자, 물결, 기하학 문양 등이 자주 보여졌고, 중국 소수민족의 모자나 소품, 털 등을 이용한 디테일 장식으로도 이국적인 중국풍을 강조하였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계 디자이너 중에서는 Kenzo(14점)가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Kenzo의 패션에 나타난 중국풍 특성은 H형 실루엣과 차이나 칼라, 대각선 여밈 방식, 매듭단추 등의 디테일과 식물문양을 프린트 또는 자수, 니팅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특히 자카드 기법도 보여졌다.

이러한 현대 여성복 컬렉서에 있어서 중국풍 특성을 반영한 디자이너의 유형별 대표적 특징을 분석하면 〈표 7〉과 같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중국풍이란 서양의 관점에서 생겨난 개념으로서 중국의 영감을 받아 나타난 모든 스타일로 정의하고, 중국풍(Chinoiserie)의 개념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중국풍의 특성이 현대 패션에 연도별, 디자이너별로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따라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최근 10년간 중국풍 디자인 특성이 나타난 파리 컬렉션에서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유럽 패션의 중심지인 파리 컬렉션을 중심으로 1646점의 사진자료를 수집한 후, 의류 관련학과의 교수와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8인에 의해 1차 분석된 440점의 사진자료를 최종 연구대상으로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과 선행연구를 통해 중국풍의 개념과 특성을 고찰하였다. 중국풍이란 17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 서양의 회화, 건축과 가구, 도자기, 텍스타일에 형태적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과 중국의 자연 풍경, 그리고 문양 등이 해당된다. 특히 중국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에서 표현된 중국 전통 복식은 마패와 장오 등으로 대부분 H형 실루엣이며, 차이나 칼라와 원목돌레선의 칼라 형태, 통이 좁거나 넓은 소매형태, 세로방향의 직선 여밈 또는 'ㄷ'자 형태의 여밈방식으로 나타났다. 중국풍 특성을 보이는 색상으로는 건축과 가구에서 붉은색, 검은색, 금색이 많이 나타났고, 도자기에서는 청색과 흰색이 주로 나타났으며, 텍스타일에서는 붉은색, 청색, 녹색, 흰색 등 다양한 색상이 보여졌다. 문양적 특징에 있어서는 부귀와 영화를 상징하는 화려한 모란문양이 특히 많이 보여졌고, 당초와 매화 등 다양한 식물문양이 나타났다. 용, 봉황 등 동물 문양과 한자, 기하학 문양도 나타났다.

둘째,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풍 특성이 나타난 총 440장의 파리 컬렉션의 자료를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2009년 이후에 중국풍이 꾸준히 증가하여 나타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2008년 8월에 중국에서 개최된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에 관심이 세계적으로 증가하면서 패션 분야에서 중국풍의 영향이 되살아난 것으로 예측된다. 시즌으로 살펴보면, 2007

년과 2011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서 S/S 시즌보다 F/W 시즌에 중국풍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재킷과 코트 등 현대 패션의 여밈과 디테일에 중국풍의 특성이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으로 사료되어진다.

셋째, 중국풍 특성이 나타난 최근 10년간의 파리 컬렉션의 자료를 디자이너별로 분석한 결과로서 Leonard와 Shiatzy Chen과 같은 중국계 디자이너가 중국풍 특성을 현대 패션에 가장 잘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Dries Van Noten, Valentino, Jean Paul Gaultier와 같은 유럽계 디자이너들도 중국풍 특성을 현대 여성복 컬렉션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Kenzo, Aesuro Tayama, Andrew GN와 같은 중국 이외의 아시아계 디자이너들도 동양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들의 컬렉션에 중국풍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국풍을 특성을 표현한 중국계, 유럽계,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계 디자이너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형태면으로는 H형 실루엣과 차이나 칼라, 매듭단추 등으로 나타났으며, 문양면으로는 식물문양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문양을 표현한 기법으로는 프린트와 자수 기법을 공통적으로 사용하였다. 중국계 디자이너와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계 디자이너 컬렉션에서는 대각선 여밈도 상당히 많이 보여졌다. 특히 유럽계 디자이너의 경우는 중국 소수민족의 모자와 소품, 털 장식 등을 활용하여 중국풍을 표현하거나, 중국 도자기에서 영감을 얻은 듯한 색상과 문양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중국계 디자이너와 유럽계 디자이너들은 식물과 동물 외에도 물결, 파도, 구름 등과 같은 자연문양의 활용도 눈에 띄었다. 문양을 표현한 기법에 있어서는 중국계, 유럽계,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계 디자이너 모두 프린트와 자수기법을 이용하였고, 특히 아시아계 디자이너의 경우는 니팅기법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색상에 있어서는 다양한 색상 사용과 함께 청색을 선호하는 유럽계 디자이너들에 비해 중국계 디자이너는 자색과 적색을 많이 선호하였고,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계 디자이너들은 금색과 무채색을 주로 사용하였다. 중국계 디자이너의 컬렉션에 자색과 적색이 많이 나타나는 것

은 적색이 중국인에게 길상으로 여겨지며 많은 장식품과 예복에 사용하기 때문에 예측된다. 따라서 유럽이나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계 디자이너들이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적색과 자색을 현대 패션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한국의 패션 디자이너와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함에 있어서 디자인개발 및 상품기획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앞으로 중국 디자이너들이 서양 무대에 진출할 때에도 세계인이 공감하는 중국풍 특성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현대 여성 패션에 적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방향은 중국풍이 유럽의 관점에서 생겨난 개념이므로, 중국의 외부에서 현대 여성복 컬렉션에 활용된 중국풍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으나, 앞으로의 연구방향은 세계 패션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중국인들이 스스로 인식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담은 중국풍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교단. (2012). *중국풍 패션디자인의 조형적 특성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선영. (2006). 현대패션에 나타난 차이니즘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4(2), 220-233.
- 김연. (2012). *현대 남성 재킷에 나타난 중국풍 디자인 특성*.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미령. (2011). *현대 중국적 패션 디자인의 미적 특성 연구*. 인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동경대 중국철학연구소. (2007). *중국사상사 (조경란 역)*. 서울: 동녘. (원저 2003 출판)
- 박은경, 이제정. (2004). *라이프 스타일과 트렌드*. 서울: 예경.
- 브리태니커. (편). (1992). *세계대백과사전*. 서울: 한국 브리태니커.
- 서원자. (2011). *중국 현대 여성 패션에 나타난 중국풍 디자인 연구*.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상철. (2011). 미술시장과 새로운 취향의 형성 관계: 18세기 로코코 미술에 나타난 쉬느와즈리 양식. *미술사학*, 25, 155-179.
- 신주영. (2006). 18세기 로코코 패션에 나타난 시누아즈리. *복식*, 56(1), 13-31.
- 왕애령. (2007). *현대 중국풍 패션에서 나타난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춘희, 신상옥. (2002). 현대복식에 반영된 오리엔탈리즘의 기호학적 분석. *복식*, 50(4), 131-146.
- 정지숙. (2006).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중국풍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홍숙, 박형애. (1998). 로코코 시대의 프랑스 직물에 나타난 시누아즈리 영향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논집*, 11, 153-174.
- 주가이, 하승연. (2015). 현대 여성복에 나타난 중국 명, 청 시대 전통복식의 디자인 특성. *복식문화학회지*, 23(6), 955-971.
- Dawn, J. (1993). *Chinoiserie*. London: Phaidon Press Ltd.
- Morena, F. (2009). *Chinoiserie*. Florence: Alpi Lito.
- Steele, V., Major, J. S. (1999). *China Chic*.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Thorp, R. L., Vinograd, R. E. (2006). *Chinese Art & Culture*. New Jersey: Pearson Prentice Hall.
- 袁宜萍. (2006). *十七至十八世纪欧洲的中国风设计*. 北京: 文物出版社.
- 戎克. (1998). *布歇和中国*. *新美术*, 2, 2004-2014 Paris Collection. 퍼스트뷰코리아. 자료검색일 2014. 1. 27.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m>